








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


□ 추천자 : 총 10명


연번 (분야)	부서	대상자	임용일 (해당기간)	주요 공적	비고
1 (따뜻한 동행)	본청 국제 협력 담당관	 경감 황윤하 '81生 경위공채	배명일 '07.04 (17년2월) 현 계급 '14.11 (9년7월) 현 부서 '23.02 (1년4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양경찰 퇴역 경비함정을 해외에 무상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(2019년) - 관련 법령 미비로 고철 매각하던 퇴역 함정을 기재부 소관 법령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개정하고, 후속 법령인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외 양여 가능케 함 * "퇴역 해경함정 개도국에 무상양여 국제협력 강화 기대" (한국일보 '20.3.11) ■ '19.5.8. 국무총리 에콰도르 국빈 방문시 성과사업 채택, 300톤급 경비함정(302,303) 2척 에콰도르 해군 양여 - 업무 담당으로 기관간 MOU, 해경청장 현지 방문, 통역, 후속조치, 의제 발굴 등 성과사업 전반을 이행 ■ 한-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(퇴역함정 2척 양여) 실무 추진 - 해양경찰청장-베트남公安부 장관간 협력 MOU 후속 조치인 함정양여(111,P-126) 사업 담당으로 양여 절차 이행 중 ■ '24.4.25. 역대 최대규모 경비함정 에콰도르 국방부 양여 - 해양경찰청장과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간 3001함 양여 약정서 서명식 성공적 이행 - 대표단 방한 협의, 인수진 지원, 3001함 계류지 선정, 인수진 교육일정, 함정 안전관리등 제반 실무 전담이행 * "굿바이 3001 해경 1호 3천t급 경비함, 에콰도르서 재취역" (매일경제 '24.2.25) 등 언론보도 다수 ※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중 가장 큰 규모인 3001함을 에콰도르 국방부에 양여 확정 	
2 (자율과 창의)	본청 구조 안전국	 경사 양준모 '80生 순경공채	배명일 '14.10 (9년8월) 현 계급 '20.12 (3년6월) 현 부서 '22.02 (2년4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상레저기구 관련 법령·제도 연구 및 개선 - 「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」 제정을 통한 전기추진 레저보트의 제도권 수용으로 인한 관련 제조산업의 활성화 및 범세계적인 탈탄소화 정책에 동참 - 「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」 전면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국민, 관련업체가 불필요하게 부담하던 비용을 과감히 없애는 등 편의성 제고, 탄력적 대응 및 안전강화 ■ 적극적인 해양경찰 관련업무 연구활동 추진 - 해양경비·해상교통관제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(해양경찰함정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) - 해양에서의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(해양경찰 구조보드 활용방안 연구) 	


연번 (분야)	부서	대상자	임용일 (해당기간)	주요 공적	비고
3 (상식과 공정)	중부청 항공단	 경감 이상혁 '82生 경위공채	배명일 '12.04 (12년2월) 현 계급 '16.09 (7년8월) 현 부서 '19.01 (5년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으로 획기적인 성과창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거 평균 3.5척 대비 '23년도 총 단속건수 29척으로 8배 이상(829%) 증가 ■ 해양안전과 민생치안 중심의 해양 法 질서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극적인 임무수행으로 해양경찰 항공기 조종사 중 최다 단속실적(총 27척) - 해양경찰 최초 고정익항공기 이용 고래포획선 단속 ■ 선제적이고 강력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 전개로 해양영토 주권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328척 퇴거('19. 1월 ~ 현재) ■ 독도·이어도 등 전략적 항공순찰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수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독도·이어도 항공순찰 총 86회('19. 1월 ~ 현재) 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수색구조 활동 전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명탄 총 258발 지원 ('19. 1월 ~ 현재) ■ 후속 고정익 조종사 양성에 노력(총 14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관승급 1명, 기장승급 1명, 부기장승급 7명, 자격회복 5명('20. 11월 ~ 현재) ■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항공임무 사례집 집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물 책자 및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작전 성공사례 및 노하우 공유 	-
4 (따뜻한 동행)	중부청 서특단 3005함	 경위 이준영 '77生 순경경채	배명일 '03.07 (20년7월) 현 계급 '18.09 (5년10월) 현 부서 '22.02 (2년4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규 안전장비 개발로 정부의 지적재산권 확대 및 국민 안전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육상과 뿔에서 이동 가능한 바퀴」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해양안전분야의 다양한 특허 10건을 등록, 실무 현장경력에 기반한 장비개발 수행 ■ 재난대응 및 단속관련 직무연구로 해양안전문화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래 재난대비 시나리오 공모전에 해양경찰청 최초로 입상하는 등 직무관련 연구 실적(행안부장관상 2회 등) ■ 나날이 흉악해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, 해양영토 수호와 국민의 재산 보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어 구사능력을 토대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한-중 통역 및 단속팀장 등 다양한 보직 수행,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(현 3005함에서 6척 나포) 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불법외국어선 단속 전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실무) 신임경찰부터 장기간 서해 최일선 경비함정에서 중국어선 단속업무 실시(216척) - (이론) 이후 지방청 외사계에서 中 불법조업 방지 한-중 MOU 추진, 현장경험을 활용한 정책 마련 	-

연번 (분야)	부서	대상자	임용일 (해당기간)	주요 공적	비고
5 (따뜻한 동행)	남해청 특공대	 경위 이석형 '79生 순경경채	배명일 '05.09.23 (18년9월) 현 계급 '22.07.01 (2년0월) 현 부서 '19.01.28 (5년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초 UN안보리결의 대북제재선박 해상진압 및 불법조업어선단속으로 해양주권 수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나라 최초 UN안보리결의 대북제재선박 해상진압작전에 투입, 정선치 않고 변침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헬기 패스트로프 이용 도주 선박 DEVI호에 승선하여 강제정선하고 <u>선장 등 13명 신병확보</u> - 서해5도·서해·제주 등 집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으로 다수의 경찰관 사상사건 발생 및 해양자원보호 하기 위해 단속현장 최일선에 투입되어 다수의 불법외국어선 단속 (출동 18회 : 나포 70척, 퇴거 3,135척, 차단 6,509척, 담보금 21억) ■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경호·경비 및 VIP행사에 참가 헌신적인 활동으로 성공적 행사개최(47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05년 부산APEC정상회의, '10년 서울 G20정상회의, '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,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참가 대테러 경호·경비 활동 - 범국민적 관심사인 나로호 우주 발사체 수송 및 발사, 여수 세계엑스포 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, VIP 해상 경호 등 업무에 기여 ■ 변화하는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비개발로 <u>특하·실용신안 4건 획득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각종 센서 발전으로 사제폭발물 처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용한 폭발물 처리장비 개발 ② 특수한 해양 환경(선박, 수중)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사출 분쇄기 거치대 개발로 전국유일 수중 사제폭발물처리장비 보유 ③ 대형선박의 테러, 좌초, 화재 등 사고 발생시 구조요원의 등선이 가능 토록하는 ON/OFF기능의 자석을 이용한 등선로봇 개발 ④ 불법중국어선 단속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필수장비인 보트의 전복사고 시 직원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복원장치 개발 등 특허청으로부터 혁신성과 기술을 인정 ■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주관 및 국내외 대회 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新유형 드론테러 대비 하여 공중재밍구역 형성으로 드론테러 대응력 강화(41회) - 해양경찰청 특공대 전술대회 폭발물 처리팀 남해청 대표로 출전 우승 2회 등 우수한 성적 달성(09년, 12년) -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 보안국(ACSO) 주관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재난/대테러 대회 어번섉�드(Urban Shield)에 EOD분야에 출전 우수한 성적 달성(18년도) ■ 해양사고 인명구조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(출동 80회, 구조 179명, 인양 31구, 검거 116명(밀입국 107명 포함)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 좌초선박 예인선 134톤 일성타-1, 바지선 장호9001호(2000톤) 승선원 8명 전원구조 등 해양사고 현장에 적극 대응하여 18년간 다수 인명구조 - 제주 해상서 중국인 밀입국자 88명을 태운 화물선 검거 - 10년간 피서철 해운대해수욕장 여름해양경찰서에 근무하며 이안류 인명사고 대응 등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기여 	-

연번 (분야)	부서	대상자	임용일 (해당기간)	주요 공적	비고
6 (상식과 공정)	남해청 울산서 정보 외사과	 경감 최성제 '69生 경장경채	배명일 '99.01 (25년6월) 현 계급 '20.04 (4년2월) 현 부서 '22.02 (2년4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국 최초 발전소 등 유해물질(소포제 586톤) 무단방류 검거(9명), 전국 확대 수사, 법 제도 정비, 친환경제품 전환에 기여('16.3월 ~ '16.1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울산화력본부·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공기업 발전소 등에서 해양 배출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유해물질 586톤이 포함된 오염수 59억톤이상 수년간 무단 배출한 해양환경사범 9명 검거 - 전국 발전소 확대 수사, '16년 국회 관심 제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안건 → 법 제도 정비, 친환경제품 사용 전환 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KBS, MBC, YTN, MBN 등 국내 언론보도 217회 ■ 마약, 고래 포획, 안전장비 사기, 살인미수 등 민생침해범죄 검거(84명) 해상치안 확립 ('15.4월 ~ '24.3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주노동자 대상 마약류 유통 외국인 8명 검거(구속 6명) - 고래 포획사범 37명 검거(구속 7명) -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 국산 유통 등 7억대 해양안전장비 사기범 12명 검거(법정구속 1명) - 해상 살인 미수범 1명 검거(구속)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마약사범 검거) KBS, MBC, YTN,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보도 115회 * (고래불법 포획) KBS, MBC, YTN 등 국내 언론보도 173회 * (중국산 불량 구명조끼 유통) MBC, KBS 등 국내 언론보도 38회 등 	--
7 (따뜻한 동행)	제주청 항공단	 경사 박승훈 '90生 순경경채	배명일 '17.01 (7년4월) 현 계급 '24.04 (1월) 현 부서 '21.11 (2년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4.3.1. 제주 마라도 서방 11해리(약 20km) 해상에서 전복 선박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흰수리(B521) 승무원으로 사고선박 항공수색 중 선원 10명 중 8명 구조, 실종된 2명의 선원의 구조를 위해 전복선박 등선, 생존반응 확인 중 높은 파도에 휩쓸려 요추골절 및 왼쪽 무릎연골 손상되었지만 국민의 생명 구조를 위해 적극적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"선체 두드리며 필사의 구조, 해경도 큰 부상"(연합뉴스 등 방송사 4건, 조선일보 등 기사 50건) ■ '22.4.8. 대만 인근 해상 선박(교토1호, 한국선원 6명) 조난 사고로 지원 중인 부산항공대 S-92헬기 추락 관련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료 순직자 2명과 생존자 1명 발생, 악천후 속에서도 카모프(B506) 헬기 출동 및 후송 ■ 제주청 항공단 근무 중('21.11.~) 해양사고 항공 수색 17건, 응급환자 이송 7건, 긴급구조교육과정 교관 2건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2.2.12. "인도네시아 선원 조업중 골절... 헬기 이송"(MBC 등 주요 방송사 뉴스 보도) 	-

연번 (분야)	부서	대상자	임용일 (해당기간)	주요 공적	비고
8 (따뜻한 동행)	제주청 서귀 포서 5002함	 경사 김필성 '86生 순경경채	배명일 '14.04 (9년10월) 현 계급 '22.07 (1년11월) 현 부서 '23.07 (1년0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4.2.15. 침수화물선 승선원 11명 전원 구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- 풍랑경보 수준의 악기상(풍속 18~20m/s, 파고 5m)으로 접근 위험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장으로서 가장 먼저 접근하여 승선원 6명 단정 이용 최우선 구조하고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른 구조세력에 구조방법 방향 제시하는 등 승선원 전원 구조에 적극 대응 * "尹, 제주화물선 침몰 보고에 사람 살리는 것 최우선" ('24.2.16., 연합뉴스) 등 81건 ■ 서해 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 - 무허가조업 단속 6척, 제한조건 위반 단속 60척, 특수공무 집행방해 1척 나포, 외국어선 검문검색 100여척 ■ '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' 경호 지원('19.11.) 및 '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' 대테러 안전관리 임무 수행('19.7.)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기여 ■ 국민안전처 주관 전술평가대회 '특공왕' 수상 입상('16.12.) - 제8회 특공대 전술평가대회(체력측정, 암살사격, 헬기레펠, 이동사격, 응급처치, 인질이송 등)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개인전 1위 입상 * "해경 최고 특공대원 서해해경 김필성 순경 특공왕" ('16.12.12., 연합뉴스) 등 9건 	-

연번 (분야)	부서	대상자	임용일 (해당기간)	주요 공적	비고
9 (상식과 공정)	중특단 특수 구조팀	 경사 최영준 '93生 순경경채	배명일 '18.06 (6년0월) 현 계급 '22.02 (2년4월) 현 부서 '24.02 (0년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4. 3. 9 경북, 포항해역 전복사고(동현호) 시 선체 내부에 고립되어있는 한국인 · 외국인 선원 구조 및 발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기 이용 출동하여 선체 내부 고립자 3명 구조(한국인 1명 생존) / 폴페이스 마스크 착용시켜 보유 장비 최대한 활용, 성공적인 구조작업 이행 * "포항 구룡포 해상서 어선 전복, 5명 구조·1명 수색 중"(KBS 등 방송사 10건) ■ '22. 9. 6 포항시 11호 태풍 '힌남노' 복상 우방 신세계 아파트 침수 관련 실종자 발생 초기 구조활동 전개로 8명 구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관기관(소방) 관할임에도 불구하고, 최초 출동 지원하여 지하주차장 배수작업 실시로 에어포켓 고립자 구조 및 익수자 발견에 기여 * "포항 아파트 실종자 9명 발견...2명 생존 7명 사망"(동아일보 등 언론사 8건, 연합뉴스 방송사 1건) ■ '23. 5. 24 전국 지역구조대 최초 수중 전복선박 구조 훈련장 구축 및 수중 개선장비(셀부스터) 납품 후 교육 시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소한의 예산 사용으로(약 1천만원) 불용된 고속단정 실내 개조하여 전복선박 훈련장 구축 - 전국 구조대 합동훈련장 활용으로 구조대원의 전복선박 구조 스킬 강화에 기여 * "포항해경구조대, 신속하고 안전한 신규 장비 현장 도입"(대경일보 언론사 4건) 	-

연번 (분야)	부서	대상자	임용일 (해당기간)	주요 공적	비고
10 (따뜻한 동행)	남해청 울산서 기획 운영과	 경감 장송열 '74生 경장경채	배명일 '07.06 (17년09월) 현 계급 '21.06 (3년0월) 현 부서 '24.02 (0년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기반 시설조성 및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활용목적 없이 방치된 국유재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구상, 구청장 및 지방의회, 주민센터에 사업제안 및 건의('20.11월 ~ '22.07월까지 사업반영 지속협업) - 지자체에서 생활체육시설 조성예산(약 9억) 투입결정, 국민을 위한 시설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단계에 적극 참여 - 해경청 소관 실내체육관과 연계, 상대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 조성 - 미활용 국유재산의 가치 증진 및 노상방치로 인해 비산먼지, 토사유출 등에 따른 상존민원의 해소 ■ 국가시행사업으로 유발된 사회적 갈등해소, 고통과 진통의 공간을 소통과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공대 훈련시설 신축으로 지역사회 갈등발생, 격렬한 반대집회 및 행정소송 제기로 사업의 장기간 표류 및 철회 우려 발생 - 주민센터 방문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서면설명 등 소통의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의 안전성과 필요성으로 설득 -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민(원고 70명)에게 주민과 상생하는 시설구축 약속, 원고 전원 소취하 결정, 사업진행 등의 - 부산 관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지 및 사회기반시설 감안,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반영, 국가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한 사례로서 자리매김 -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중이었던 국가시행 사업(특공대 훈련시설)의 순조로운 마무리로 특공대원 및 유관 대테러기관 합동훈련 시행, 국가 대테러 역량향상에 기여 ■ 북항재개발 구역 내 기관간 협업으로 남해청 이전부지 확보(진행 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북아 최대항만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 북항재개발 구역 내 해상치안 및 안전관리 기관인 남해지방청 이전 필요성 대두 - 사업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방문, 사업개발에 대한 이전 필요성 설명,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협의를 통해 이전 가능 부지 확정 - 1단계 사업 준공 정산 후 국유화를 통해 이전부지 확보 추진 중 ■ 해양경찰 파출장소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전국 해양경찰 청사의 통일성 및 상징성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·출장소 표준모델 3개안 개발 배포, 해양경찰 청사의 통일된 상징성 확보 및 지역별 선택의 다양성 부여 	국민추천